

## 예언과 독자

허 윤 덕 \*

### I

예언적 전통과 관련하여 블레이크와 예언자 특히 구약의 예언자들과의 비교 논의는 그가 생존해 있을 때부터 그의 전기적 사실 등을 중심으로 단편적으로만 이루어졌던 것처럼 보인다.<sup>1)</sup> 이것은 인간의 신성에 대한 믿음, 진정한 인간의 속성으로서의 상상력, 그리고 영원세계에 대한 블레이크의 신념을 신비주의나 체계적 형이상학 등과 관련하여 분석하거나 혹은 당대의 현실에 대한 그의 관심을 사회비평적 관점에서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넓은 의미에서 그의 신념이 예언자적 시인의 태도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인색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예술가로서 블레이크의 추구의 목적인 ‘새로운 예루살렘(New Jerusalem)’의 건설은 궁극적으로 수면 상태에 있는 인간의 상상력 혹은 ‘시적 정기(Poetic Genius)’를 일깨움으로써 인간의 신성을 회복시키는데 있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이전에 구약의 예언자들 이후로 계승돼 왔던 예언적 전통 속의 예언자적 시인의 태도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블레이크와 예언적 전통에 대한 본격적 논의는 1950년대 이후 프라이(Northrop Frye), 피셔(Peter Fisher), 그리고 블룸(Harold Bloom)등이 ‘예언(prophetic)’, ‘비전(visionary)’, 그리고 ‘계시(apocalyptic)’와 같은 용어를 블레이

\*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교수

1) 일레로 블레이크의 제자였던 리치몬드(George Richmond)는 블레이크를 처음 만났을 때의 인상을 “마치 예언자 이사야와 함께 걷는 것처럼” 느꼈다고 술회한 바 있다 (Alexander Gilchrist, *Life of William Blake: With Selections from His Poems and Other Writings* [East Ardsley: E. P. Publishing, 1973], p. 342).

(prophet-poet)으로 평가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그에 대한 다른 비평적 논점들과의 혼재 속에서 단편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정당한 평가를 받았던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예언자적 시인으로서의 그에 대한 평가는 과연 예언적 전통에 있어서 그를 어떠한 위치에서, 그리고 어떤 접근 방법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블레이크와 전통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문제에 대해 일부 비평가들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을 극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엘리엇의 경우 블레이크에 대해서 자기 자신만의 사고에 몰두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용인된 전통적 사상의 틀”을 결여하고 있다고 비판한다.(Eliot 157) 다시 말해서 전통과의 강력한 유대를 갖지 못한 시인은 능력이 없는 시인이며, 따라서 그의 고립주의도 기실은 어떤 주요 능력—가령, 언어 능력—이 결여된 결과라는 것이다. 그러나 레인(Kathleen Raine) 이후 그가 전통을 무시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려는 움직임이 일게 되지만, 이들 역시 접근 방법에 있어서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레인은 「블레이크와 전통」에서 “블레이크의 전통의 근원들에 대한 인식을 통하여 그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게 됐다고 주장하면서, 그를 주요한 시적 전통이 아니라 신플라톤주의와 신비학을 포함하는 이단적 전통 속에 위치시킨다.(182) 그러나 핵스트럼은 “신플라톤주의라는 공허하고도 실체가 없는 허식은 블레이크의 비전과 대등한 상대가 되기에는 부적절하고 불충분하다”고 하면서 레인의 주장을 반박하고는 그의 전통적 근원으로서 성서와 밀튼 그리고 미켈란젤로와 라파엘 등을 열거하면서 그가 이들 작가와 예술가를 작품에 반영하는 등 이들 앞에서 매우 겸허했음을 지적한다.(82) 또한 윌트레이 역시 “블레이크에게 끼친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은 성서, 밀튼과 미켈란젤로와 라파엘등이 그에게 주었던 영향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사실을 입증한다.(25)

그런데 여기서 블레이크와 전통의 문제를 앞서 열거한 선배 예술가들과만 연관을 시킨다면 그 논점이 왜곡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와 전통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브라운이 주장했듯이 그 전통을 유대교와 기독교를 포함하는 예언적 전통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가 무엇보다도 그의 모범으로 히브류 예언자들을 선택하고—물론 이들은 동시에 그의 극복의 대상이기도 했다—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가 비평가들로부터 예언적 전

통과 관련된 예언자적 시인으로서 평가를 받게 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그에 대한 많은 접근 방법들, 가령 신비주의적 측면이나 사회 정치적인 측면 등등을 포괄할 수 있는 평가라고 여겨진다. 이러한 생각이 타당하다면 예언적 전통의 측면에서 그를 연구한다는 것은 많은 가능성을 내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에게 있어서 가장 심원한 전통의 뿌리는 멀리로는 히브류 예언자들에 의해 가깝게는 스펜서(E. Spenser)와 밀튼에 의해 서사적 전통과 접목된 예언적 전통이다. 이것은 레인이 탐구한바 없는 전통이며, 블레이크에 의해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전통으로 「시적 소묘」(*Poetical Sketches*)에서 「예루살렘」(*Jerusalem*)에 이르는 그의 시의 기저를 이루면서 그의 시를 이해하는데 최상의 지침을 마련해 줄 전통일 것이다.

무엇보다도 블레이크를 예언적 전통 속의 예언자적 시인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인은 그가 히브류 예언자들의 예언서나 밀튼등의 작품의 구조나 기법을 활용했다는 데서 기인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의 작가적 태도, 인류 구원에 대한 목적,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신성, 인성, 그리고 자연, 주체와 객체, 원인과 결과 등을 동시에 간파하는 그의 변용적 인식(transfiguring perception)에 기인하는 바가 더욱 크다. 구약의 예언서들과 비교될 수 있는 이러한 특징들은 그의 소리, 분명히 은유적이면서 문법적으로는 모호한 수사학, 그리고 성서와 밀튼에 대한 암시를 즐겨 사용하되 비판적이면서도 동시에 확신에 찬 활용 등에서 확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의 작품에서 히브류 예언자들의 예언서나 밀튼 등의 작품의 특징만을 찾아냄으로써 그와 이들의 유사성을 확인하는 작업은 그의 작품의 독창성을 규명하는데 그다지 도움이 안될 뿐만 아니라 문학적 의의도 없다고 생각한다. 위트레이가 지적하고 있듯이 중요한 것은 블레이크의 시가 전통적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 그 여부가 아니라 그가 다양한 전통을 통하여 과연 무엇을 만들어 냈느냐 하는 것이다.(9) 말하자면 이러한 전통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변용했느냐 하는 그의 특유의 전통의 변용 방법에 관한 연구가 문학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 문제는 세상을 바라보는 그의 시각 혹은 방법론의 관련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물론 예언의 대상과 방법론에 있어서 다소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그가 추구했던 시적 목표와 이전의 예언자적 시인들의 그것을 비교 분석해 보면 그가 그 추구의 목적과 태도에 있어서 예언적 전통의 본류를 계승하되 그것도

보다 확장되고 독창적인 변용을 통해 계승하고 있음이 입증되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생각을 토대로 본 논문은 블레이크의 문학을 예언적 전통과 그 변용의 관점 그리고 독자와의 관계에서 논의하려 한다.

## II

예언에 대한 개념은 이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지만, 대체로 예언의 배경에는 전통적 가치 체계를 파괴함으로써 초래되는 묵시록적 위기가 자리하고 있다. 그래서 예언은 “도시의 대변혁에 대한 비판적 응답”, 다시 말해서 “새로운 사회구조 속에 내재하는 선과 악이 지니는 잠재력에 대한 인식”이다.(Brown 367) 이 정의를 근거로 하면 예언적 전통은 “도시의 대변혁이 낳은 새로운 사회구조에 방향을 제시하고, 그 내재적 모순들을 해결하며, 불의, 불평등, 가치관의 붕괴로 인한 혼돈 상태, 그리고 그 역사 속에 점철된 전쟁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한 시도”이다.(367~8) 18세기 중반에 들어서면서 영국에 불어닥친 산업화 물결은 도시화를 촉진시켰고, 도시화는 어떤 의미에서 세계 통합의 과정을 필연적인 것으로, 또 다른 의미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17세기 이래로 추진된 과학의 발달은 지식의 새 지평을 열면서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지적 호기심을 자극했다. 이러한 지적 분위기는 그때까지 하나의 진리처럼 계승돼 왔던 종교적 도그마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것은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던 시대정신에 따라 당시 신학과 철학은 이성과 종교의 조화를 꾀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이신론(Deism)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제 신은 자연법칙에 따라 운행되도록 세상을 창조했던 까닭에 더 이상 인간사에 관여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냉담하고 추상적인 초월적 존재에 불과했다. 따라서 신은 인간의 이성과 상식에 철저히 적응한 나머지 더 이상 인간과 어떤 영적 유대를 지닐 수 없는 순전한 추상적 개념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물질계에 내재하는 인과법칙의 발견에 몰두했던 이신론자들은 인간의 내면 세계에까지 합리적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려 했고 그리하여 인간성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분석으로부터 끌어낸 인간의 행동 양식이나 법칙을 토대로 보편적인 원리 체계를 세우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합리적 과학 정신은 계몽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기독교에 대한 우상 파괴적인 역할만을 했을 뿐 기존의 기독교 신앙을 대신할 만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기존의 모든 미적·정신적·종교적 가치는 과학에 의해 일종의 망상으로 치부되었고, 오로지 사실과 법칙만이 진리로 남게 됐다. 결국 황량한 기계론적 세계관의 막다른 골목에 봉착하게 된 동시대인들은 회의와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고, 또 삶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쉽사리 발견할 수도 없었던 것이다.<sup>2)</sup> 블레이크는 동시대의 삶이 이처럼 황량해질 수밖에 없었던 근본 원인이 뉴턴(Newton)의 세계관과 로크(Locke)의 인식론에 있음을 정확히 통찰했다. 뉴턴의 세계관에 따르면 인간의 눈에 비치는 세계는 허상에 불과하며 객관적이라 할 유일한 세계는 공간에서 운동하는 물질의 입자, 즉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원자는 존재하지 않는다”(Erdman 783)라고 반박하며 블레이크는 객관적 물질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지각하는바 사물의 형상, 혹은 이미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말하자면 원자는 물질의 합리적 분석을 통해 도달한 추상개념일 뿐이며 우리가 직접 지각하는 형상만이 구체적인 것으로써, 인간의 삶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장미는 장미일 때 아름다운 것이지, 만일 장미에서 붉음을, 백합에서 흰빛을, 다이아몬드에서 견고함을 추출하게 된다면 인간은 창조 이전의 혼돈으로 되돌아 갈 것이라고 그는 경고한다.(596) 따라서 블레이크에게 “일반화하는 것은 곧 백치가 되는 것이며, 개별화하는 것만이 진정한 탁월성의 특질인 것이다.”(641) 이처럼 뉴턴적 세계관에 기반을 둔, 그리고 근대적 의미의 기술과 자본의 승리이자 서구의 거대한 변혁인 근대화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기는커녕 오히려 기독교적인 전통적 규범을 파괴함으로써 그 결과 묵시록적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

시대가 처한 묵시록적 위기를 맞이하여 블레이크의 신념이 임박한 신의 구원으로 인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리라 믿는 지복천년사상(millennialism)의

2) 에반스는 18세기 중엽에 들어서면서 카우퍼(William Cowper)로 대표되는 일군의 시인들이 일종의 광기, 또는 신경증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들의 광증이 신고전주의 문학에 대한 반동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Ifor Evans, *A Short History of English Literature*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76], p. 66). 그러나 루소는 이 같은 현상을 문단의 유행으로 본 역사가의 견해를 일축하고는 이 현상이 당시의 전반적 심리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주요한 지표라고 주장한다 (G. S. Rousseau, "Science", *The Context of English Literature: The Eighteenth Century*, ed. Pat Rogers [London: Methuen, 1978], p. 188).

한 갈래이며, 그의 변용적 인식 방식이 현실의 상반된 모순을 그 너머의 시선으로 바라보도록 독자들의 인식을 일깨우고 있는 측면을 고려하면 그의 작품이 예언시의 전통에 맞닿아 있음은 오히려 당연하다 하겠다. 현실 역사 속에서 혁명의 열기가 고양되었을 때마다 활기를 띠게 되는 예언시의 전통은 17세기 청교도 혁명 때처럼 프랑스 혁명의 시기에 영국 시인들의 상상력을 자극시키는 요소였다. 청교도 혁명이 지복천년에 대한 믿음을 대중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면, 그 후 오랫동안 잠재되었던 이 신념이 예기치 않았던 힘으로 전면에서 터져 나왔던 것은 프랑스 혁명의 직접적인 여파 속에서였다.

낭만주의 시인들, 특히 블레이크가 프랑스 혁명의 열기 속에서 새로운 계시의 역사가 시작될 것임을 기대했고, 또 현실 역사 속의 혁명을 그러한 계시적 순간으로 해석하려 했다는 것은 이런 예언시의 전통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투베손이 지적한대로 르네상스시기에 계시의 의미가 주로 개인 영혼의 구원과 관련되어 해석되었다면, (30) 낭만주의의 예언시는 개인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정치적 혁명을 통한 사회의 구원, 나아가서는 우주 자체의 구원에 대한 논의 등을 포괄하고 있는 장르이다. 영시사의 예언시의 전통 속에서 블레이크와 셸리(Shelley)의 시세계를 분석하고 있는 호욱우드는 낭만주의 시인들에게 예언시의 전통이 특별한 호소력을 끌었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예언은 다중 시점의 기술로서 동시에 발생하는 예언의 비전은 하나의 사건 혹은 사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방법을 마련해준다. . . 본다는 것은 앎을 의미한다. 그래서 인식론은 불일치가 널리 퍼져있는 시기에 발생하는 학문이다. 게다가 계시록에 나타난 폭력적인 이미저리, 즉 호전적인 힘을 함축하는 우주의 재생과 같은 내용 때문에 계시록은 빼앗긴 자들에게 대단히 매력적인 존재로 다가간다. 그래서 예언의 기술은 혁명적이다. 지적 철학과 정치적 혁명의 관계를 인지한다는 것은 낭만주의 작가들에게 예언의 형식이 지녔던 특별한 호소력을 이해하는 것이다. 설령 예언을 다룬 그들의 작품에서 외면적 수단들이 세계를 변화시킬 어떤 내면적 수단들에 의해 대체된다고 해도, 그것은 결코 놀라운 일은 아닐 것이다. 내면적 그리고 외면적 계시와 그 변증법은 영국의 전통내내 시인들에 알려진 것이었다. (57)

호욱우드의 설명은 낭만주의 예언시가 혁명기의 역사 현실을 신의 진정한

뜻이 전개되는 모습으로 해석하려 하며, 그 현실을 우주의 구원 및 개인의 내면적 구원과의 동적인 관계 속에서 그려내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프랑스 혁명이나 미국 혁명과 같은 오직 현실의 혁명과 관련해 블레이크에 접근하는 것은 오히려 예언자적 시인으로서의 그의 존재 의미의 많은 부분을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예언시는 현실 속의 역사의 모순을 철저히 인식하면서 그 너머를 염원하는 희망으로 독자들의 인식을 일깨우고자 하는 시적 목표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그에게 현실의 혁명은 비록 계시의 시작이기는 하지만 계시의 완성은 아니며, 또한 계시는 외면적 계시와 내면적 계시 사이의 동적인—혹은 변증법적인—관계 속에서 완성되는 것이다.

예언자적 시인으로서 블레이크는 자기 시대와 사회의 모순 점을 예리하게 진단했을 뿐만 아니라, 당대의 합리론적 의견이나 관념의 틀 속에서 삶과 예술을 바라보기를 거부했다. 핵스트림에 의하면 그러한 사회는 ‘수동적 심리학(passive psychology)’에 지배되는 곳이며, 예술가들은 단지 자연 현상을 재결합이나 하면 된다고 믿는 사회였다.(146) 블레이크는 그 당시 예술계의 거두였던 레이놀즈(J. Reynolds)에 대한 비판을 통하여 당시의 사회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단을 내린바 있다.

영국에서는 어떤 이가 재능이 있는지 천재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고분고분하고, 예의바르며, 고결한 바보인지, 아니면 예술이나 학문에 있어서 귀족의 견해에 얼마나 순종하는지가 중요하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는 훌륭한 사람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는 굶어 죽어야만 한다. (Erdman 642)

그 결과 그의 예술은 엘리트가 간파한대로 동시대의 다수 지식인과 예술가들을 불쾌하게 하는 정직성을 소유했으며,(151) 그는 개인적 고립을 감수해야만 했다. 물론 그 고립은 그가 자칭한 고립은 아니었으며, 또한 일부의 사람들이 혹평했던 것처럼 그가 광인이었거나<sup>3)</sup> 괴짜라는 마스크를 지닌 인물은 더더

3) 이러한 평가는 예언자들의 운명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헷셀은 “예언자가 된다는 것은 남과는 다른 품모와 고뇌를 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가 수행하는 사명은 그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불쾌한 것이다. 예언자는 경멸과 비난을 감내한다. 그는 당대의 사람들에게는 광인이라는 오명을, 현대의 학자들에게는 비정상인이라는 오명을 받는다”라고 하여 예언자들에 대한 사회

옥 아니었다.<sup>4)</sup> 소리의 지적에 따르면, 블레이크가 시인으로서의 목표를 예언적이라고 생각한 동기는 자신을 고립시키려 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고립을 극복시켜 줄 사람들—단순한 후원자가 아니라 그의 소리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사람들—을 발견하려는 것이었다.(14)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지만, 놀라운 인내력을 가지고 “대중들에게 (To the Public)” 일생 동안 내내 계속해서 그의 견해를 피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은 합리주의자들처럼 그들에게 어떻게 해서 진보가 필연적이며, 어떻게 예언될 수 있는지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합리주의자들이 합리적이면서도 과학적인 이론 체계를 가지고 모든 현상들을 설명하려 했던 시도는 부분적으로 타당한 것이었다고 할지라도, 블레이크는 그러한 시도가 인간을 해방시켰다고 보다는 오히려 구속했다고 판단한다. 왜냐하면 합리주의자들의 과학적 이론 체계가 사물을 진실로 통찰할 수 있게 하는 예언적 통찰력이 결여돼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피셔는 원래 비전과 동일한 의미를 지녔었던 이론이 어떻게 그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게 됐는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론이란 용어 그 자체는 원래 비전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관념이나 일반적 개념이라기보다는 통찰력과 명상과 관계가 있었다. 그 말이 예언적 통찰력과의 원래의 관계를 상실하고 합리적 사색이라는 의미를 지니게 된 것은 아마도 그리스인들의 개념화하는 특성 탓이었을 것이다. 고대 예언자들의 비전에서 벗어나 이성과 자연이 득세를 하면서 후기 그리스인들에게 예언은 사색적인 혹은 모호한 존재였다. 다시 말해서 철학가나 승려들의 견해와 같은 의미가 되 버렸던 것이다.(4)

따라서 합리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예언이란 이미 알려진 도그마나 경험적 탐

---

적 대우가 부정적이었음을 지적하고 있다(Abraham J. Heschel, *The Prophets: An Introduction* (New York: Harper & Row, 1969), p. 17~18).

- 4) 브로노스키는 블레이크의 “과벽성(eccentricism)”의 문제와 관련하여 “블레이크의 생애는 괴팍한 것이 아니다. 그의 작품과 시대가 어우러져 함께 이루진 상황, 즉 사적 세계가 아니라, 공적 세계에서 살아간 한 사람의 상황을 우리가 놓친다면 그것이 곧 괴팍한 것임을 알게된다.”라고 하여 이 문제를 그 당시 사회 상황과 관련시켜 보아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오히려 그 문제는 독자들의 몫이라고 주장한다(J. Bronowski, *William Blake: A Man without a Mask*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54], p. 190).



구에 의존하는 이성과 자연법칙을 토대로 하는 소위 '이론적 예언(theoretical prediction)'이다. 이론적 예언은 블레이크 생존시 이미 두 가지 유형, 즉 자연법을 토대로 하는 뉴턴적 세계관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는 진보의 필연성과 자연 철학자들의 인과 법칙론에 대한 믿음이라는 두 가지 유형을 취하고 있었다. 필연적이면서 미리 예정된 형태를 토대로 하는 합리주의자들의 예언은 블레이크에게 거짓 예언자들의 예언에 불과한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거짓 예언자들이란—물론 당대의 합리주의자들 이전에도 이런 유형의 예언자들이 존재했었다—자신의 존재에 대한 도전을 회피하면서 그들의 실수나 그들에게 닥친 문제들을 천명과 운명이나 혹은 어떤 마술적 기법으로 모면해 보려는 인간의 욕망에 영합하려는 존재라고 블레이크는 생각한다. 따라서 닫힌 체계—실체의 모든 구조의 윤곽이 이미 예정돼 있기 때문에 '닫힌'—는 종교적 독단론자들의 만병통치약이었으며, 또한 자연 철학자들의 합리론을 옹호하는데 적절히 이용되었다.

자신의 예언을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면 블레이크는 현대적 의미의 예언자는 아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예언의 근원은 합리주의자의 이론이 아니라, 예언자의 비전이기 때문이다.(4) 그는 구약의 예언자인 요나(Jonah)의 경우를 예로 들고는 예언자가 합리적 이론이 아니라 비전에 의하여 예언의 행위를 수행한다는 점을 밝힌다.

현대적 의미에서의 예언자는 결코 존재해본 적이 없다. 요나는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예언자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니네베(Nineveh)에 대한 그의 예언은 실제로 끝나고 말았기 때문이다. 정직한 모든 사람은 예언자이다. 그것은 정직한 사람이야말로 자신의 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공적인 문제를 피력하기 때문이다. 그는 결코 이러저러한 일들이 일어나리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예언자는 자의적인 구술자가 아니라, 앞서 보는 자(seer)이다. 만약에 신이 그에게 은총을 베풀 수 없다면, 그것은 인간의 잘못이다. 왜냐하면 그는 올바른 자이든 그렇지 않은 자이든 관계없이 선물을 주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그의 선물을 거부한다.(Erdman 617)

여기서 블레이크는 예언자가 “자의적 구술자”가 아니라 “앞서 보는 자”이자 “정직한 사람”라고 정의한다. 그의 관점에서 본다면 예언자는 그것이 사적인 일이든 공적인 일이든 간에 그것에 내재한 논리 체계가 무엇인지를 판별하고 나서 그의 견해를 당당히 피력하는 사람이다. 예언자의 자질은 요나의 경우처럼

럼 그의 말이 실현되는가 그렇지 못한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신의 선물(gift of God)”이 무엇이든지 간에 블레이크는 분명 그 선물이 자연적 혹은 이미 알려져 있는 진리가 담긴 닫힌 체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예언자의 지적 행위는 기억에서 유래한 평상시의 합리론이 비전에 종속되거나 혹은 대체될 때에만 영감과 동일시된다. 그래서 예언자들의 영감을 단순한 수동적, 무의식적인 감수성 정도로 파악한다면 안될 것이며, 이들의 행위의 본질 역시 영감으로 받은 메시지를 기계적으로 재생하는 것도 아닐 것이다. 예언자는 비전을 보고 나서, 그 비전을 사람들에게 전달할 특권을 지닌다. 그는 말이나 혹은 상징을 통하여 전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가 목격한 것은 그의 존재 안에서 ‘신의 말씀’으로 화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이 곧 모든 예언적 저술의 특징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 III

예언자적 시인으로서 블레이크가 히브류 예언자들을 그의 모범으로 삼은 주된 이유는 이들 예언자들이 예언의 내적 근원인 ‘시적 정기(Poetic Genius)’—즉, ‘신의 선물(gift of God)’—를 항상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천국과 지옥의 결혼』(*The Marriage of Heaven and Hell*)에서 그는 예언자 에스겔(Ezekiel)의 입을 빌어 예언을 “사람들을 무한성에 대한 인식에 이르도록 하려는 열망”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힌다. 인간이 무한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동굴의 좁은 틈새를 통해서” 세계를 인식하는 이유는 자신이 시적 정기를 대상화하여 신으로 숭배하고 “인간이 영혼과 분리된 육체를 가졌다는 생각”에 빠져서 인간을 수동적인 존재로 그리고 세계를 고정 불변의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Erdman 39) 그래서 무한성을 인식한다는 것은 어떤 신비스런 경험이 아니라, 자신에 내재한 신성인 “시적 정기”의 무한성을 인식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블레이크의 에스겔은 “우리 이스라엘인들은 시적 정기가 체질의 원리이며, 이외의 나머지는 단지 부수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가르쳤다”(Erdman 39)라고 함으로써 시적 정기가 신성의 궁극적 원천임을 암시한다. 시적 정기의 개념은 그의 전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강조되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으로, 이

개념을 인간을 이루는 기본 능력으로 제시하고 인간의 감각 뒤에 있는 잠재력으로서 그 의미를 강조한다. 인간이란 결코 감각 기관에 의해 수동적으로 제약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무한한 창조 능력을 지닌 존재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시적 정기에 대해 블레이크는 이미 소책자인 『모든 종교는 하나이다』(*All Religions are one*)에서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첫 번째 원리: 시적 정기는 진정한 인간이며, 인간의 신체 혹은 외적 형상은 시적 정기에서 비롯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만물의 형상은 바로 그 정기에서 비롯된다.

두 번째 원리: 모든 인간은 외적 형상이 똑 같은 것처럼, 시적 정기에 있어서도 같다.

Principle 1 That the Poetic Genius is the true Man. and that the body or outward form of Man is derived from the Poetic Genius. Likewise that the forms of all things are derived from their Genius.

Principle 2 As all men are alike in outward form, So (and with the same infinite variety) all are alike in the Poetic Genius. (Erdman 1)

시적 정기는 이처럼 변용적 인식의 첫번째 원리로 정의된다. 블레이크는 시적 정기를 아주 다양한 형태로 상상력과 동일시한다. 상상력이 지각의 부속물 정도로 여겨지던 시기에 그는 이미 변용적 인식을 설명하기 위해 이 단어를 사용하였다. 이 때 변용적 인식은 감각 자료들을 통합하고 동시에 감각 자료들을 개인적 삶의 시각 속으로 재창조하는 감각의 근원을 의미한다. 피셔의 견해를 빌린다면 이것은 “인간이 자신과 궁극적 목적을 가장 뚜렷하게 의식하고 있을 때의 개인을 의미하며, 그것의 작용은 인간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 정도를 결정하는” 요소이다.(18) 시적 정기의 반영으로서만 본다면 인간의 자연적 존재는 파생적이며 의존적이다. 그래서 시적 정기의 작용에 최대한으로 참여함으로써 인간의 존재는 독창적이면서 독자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 이와 같이 시적 정기는 변용적 인식과 존재의 궁극적 근원 속의 인간의 이외의 기능들을 결합하며, 상상력은 일시적 존재와 영원한 존재 사이의 공통적 요소가 된다. 이러한 종류의 신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그와 동일시되어야 하

며, 그의 선물을 거절한다는 것은 인식의 자연적 한계를 수동적으로 수용하고 반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시적 정기를 '진정한 인간(True man)'으로 정의하고 이것으로부터 인간의 외양이 파생된다고 말하고 있는. 이는 시적 정기가 일종의 내재적인 욕구요 에너지의 원천이며 적극적인 구성 능력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또한 인간이 통합적이고 능동적인 비전의 소유자라는 것을 강조하려 한다. 또한 시적 정기가 '예언의 정신'이라고 정의함으로써 이 개념이 블레이크에 있어서 예언의 내적 근원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만일 세계가 이미 알려져 있는 것들로만 구성되어 있고 인간이 그것을 수동적으로 인지하는 능력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세계는 '똑같이 지루한 순환'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Erdman 3) 그러나 인간의 역사는 새로운 것들을 인식하고 만들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모든 새로운 것의 원천으로서 시적 정기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때 시적 정기는 대상과의 만남을 통해서 대상을 발견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인간의 창조적 상상력을 지칭하는 것이며 이 창조적 상상력이야말로 인간에게 내재해 있는 신성인 것이다.

창조적 행위는 단지 상태의 산물만은 아니었던 모든 존재의 특성이었다. 그 상태의 산물이 바로 피조물이고, 어떤 종류의 존재를 성취하기 위해 피조물은 분명히 그를 창조한 창조주의 경쟁자가 되었다. 블레이크는 밀튼을 두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악마의 편을 들었던 진정한 시인"이라고 평가했다. 각 개개인은 경험을 합리적으로 체계화하거나 혹은 그의 천부적 생득권을 수동적으로 수용함으로써가 아니라 대립물의 변증법적인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투쟁과 탐구(블레이크는 이를 전쟁과 사냥으로 불렀다)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실현시켰다.(Fisher 5)

이처럼 시적 정기는 자신의 존재를 실현하기 위해 투쟁과 탐구를 필요로 하고, 지각과 존재라는 원천 속에서 인간의 여러 기능을 통합하는 개념이며, 이 개념이 암시하고 있듯이 인간의 존재를 특징지우는 지각은 창조적 행위와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예언자의 임무는 인간에게 지각력을 활용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일시적 목적에 의해 열등한 신적 대상을 숭배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것이다.

『천국과 지옥의 결혼』에서 이사야와 에스겔 두 예언자를 통하여 블레이크는 예언자와 예언에 대한 정의를 극적으로 제시한다. 화자와 예언자 이사야의

대화는 신이 자신에게 말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했느냐, 혹시 오해를 받아서 “imposition”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느냐는 화자의 질문으로 시작된다.

나는 예언자 이사야와 에스겔과 저녁을 함께 하면서 어떻게 감히 것처럼 솔직하게 신이 그들에게 말을 건네 왔는지, 그리고 그들이 오해를 받아 탄압(혹은 기만, imposition)의 원인이 되지 않았는가에 대해 생각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물어 보았다.(Erdman 38)

이 때의 “imposition”은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 하나는 예언이 숨겨져 있는 진리를 밝힘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탄압”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오히려 그 예언이 이용되어 억압의 수단인 “기만”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이사야의 대답은 곧 예언자의 예언적 소명을 밝히고 있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나는 한정된 유기체의 지각으로는 신을 보지도, 그의 소리를 듣지도 못했다. 그러나 나의 감각으로 만물 속에 있는 무한성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리고 정직한 분노의 소리가 신의 목소리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게 되었을 때, 나는 결과에는 상관 없이 써내려 갔다.’(Erdman 38)

제한된 오감으로는 신을 보지도 듣지도 못했지만 자신의 내부에서 우러나오는 “분노의 목소리”가 “신의 목소리”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글로 썼다는 이사야의 대답은 예언적 글쓰기에 대한 블레이크의 생각을 보여준다. 정직한 분노의 소리와 신의 소리를 동일시하는 이 진술은 종종 예언자에 대한 그의 다른 진술과 연계되어 인용되곤 한다. 이 진술을 하기 전에 이사야는 육체의 감각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비상한 능력에 대해 명시적으로 묘사하고는 “모든 존재들 속에 내재한 무한성을 발견한” 변용적 인식으로 신을 보았던 것과 신에게 들었던 것을 함축적으로 설명한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사야는 「순수」(Innocence)의 화자와 「경험」(Experience)의 예언적 화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존재에 내재한 신성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정직한 분노의 목소리는 세계를 있는 그대로 인식할 수 있는 능력에 좌우된다. 다시 말해서 그 소리는 예언적으로 인식된 신성하고 무한한 세계와 사람

들이 갇혀 있는 세속적으로 인식된 타락하고 유한한 세계 사이의 차이를 명백하게 인식함으로써 나오는 것이다. 용기, 정직 그리고 변용적 인식을 가지고 모든 인간은 예언자가 될 잠재력을 가지지만, 극소수만이 이러한 잠재력을 현실화시킬 수 있을 뿐이다.

신의 선물인 시적 정기를 언제나 의식하고 있는 예언자들의 인식은 대체로 그들의 정신적 습성이나 관습적 추론에 의해 애매 모호하면서도 편협한 성격을 갖고 있는 보통 사람들의 인식에 비해 인간적·자연적인 면뿐만 아니라 이 세계에 대해 보다 분명하고도 폭넓은 관념을 포용한다. 자연사와 인간사가 어떻게 신성한 행위들과 혼연일치 되는지 명확히 통찰함으로써 예언자는 그가 해명한 것이 현재에 대한 진리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이것은 곧 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대로의 세상에 대한 비전인 것이다. 그래서 예언자는 보통 사람들이 듣거나 볼 수 없는 현상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게 된다.

우리들에게 불의는 사람들의 복리에 해로운 것에 불과하지만, 예언자들에게 그것은 존재에 치명타를 안겨주는 것이다. 우리들에게 그것은 하나의 에피소드에 지나지 않지만, 그들에게는 세계를 위협하는 대재앙이다. 불의에 대한 그들의 조바심은 우리들에게는 히스테리로 비취질 수 있다. 우리는 끊임없이 불의의 행위들, 위선, 허위, 분노, 불행 등을 목격하지만, 거의 분노하거나 지나치게 흥분하지도 않는다. 예언자들에는 사소한 불의일지라도 우주의 균형에 관계가 있는 것이다.(Heschel 4)

이처럼 예언자는 사회의 풍요스러운 겉모습 뒤에서 미치고 있는 파괴적인 힘들을 인식하고는 현재의 상태의 결과인 미래의 재앙을 이미 실현된 사건으로 선포한다. 왜냐하면 그가 인식하고 있는 포괄적 비전 속에, 말하자면 세상에 대한 예언적 차원 속에는 과거, 현재, 미래, 신, 인간, 그리고 자연, 주체와 객체, 원인과 결과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포괄적 역사관의 토대를 이루는 이론적 추론을 코흐(Klaus Koch)는 ‘초역사(metahistory)’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약의 이사야가 ‘야훼의 행위(Yahweh's work)’ 그리고 예레미야(Jeremiah)가 ‘야훼의 길(Yahweh's way)’라 지칭했던 것을 현대적인 용어로 기술한 것이다.(Koch 5)

초역사관 역사를 초월한 무한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실재를 복잡하지

만 모든 것을 포용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결합하는 것을 일컫는 이론을 의미한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과 야훼는 두 가지 필연적인 서로 대립하는 원리를 만들게 된다. 예언자는 언제나 천천히 진행중인 과정을 수행중인 야훼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러한 의미로 볼 때, 예언자의 신은 본질적으로 역사상 실재하며, 인간 역시 그러하다. 또한 역사상 실재한다는 것은 일어난 사건들이 심원한 의미를 갖고 있고 되돌릴 수 없다는 점에 대한 확신을 의미한다. 동시에 이 개념은 눈에 비치는 세상의 과정 속에 담겨있는 원인과 결과 사이의 고리만을 바라보는 현대적 의미의 역사와는 이질적인 관계에 있다. . .야훼의 행위는 모든 실재를 관통하며, 그의 권능은 그것을 늦추든 빠르게 하든 시간을 창조한다.(73)

오직 겉으로 드러나 있는 인과관계만을 고려하는 현대적 의미의 역사와는 달리 모든 실재를 관통하고 있는 신의 행위와 권능, 다시 말해서 모든 실재의 외면뿐만 아니라 내면을 통찰하고 있는 포괄적 역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히브류 예언자들은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만 했다. 그들의 메시지는 당시의 기성의 종교 체제에는 적절하지 않았으며, 신성한 메시지가 이스라엘의 종교적 체도를 통하여 전달되는 전통적 형식으로는 만족스럽게 묘사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사학상의 전통적 기풍을 없애기 위해서는 대담한 표현뿐만 아니라 과거를 전복시키는 표현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예언자는 옛것과 인습의 틀을 벗기고 청중들에게 충격을 주어 진정한 진리를 인식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히브류 예언자들은 남편과 아내의 메터퍼를 이용하여 신과 이스라엘, 또는 유대(Judah)사이의 관계에 대해 새로운 견해를 도입하였으며, 이스라엘 또는 유대의 계속적인 쇠퇴, 이들의 남편, 곧 신에 대한 부정한 반역을 입증하기 위하여 국가의 역사를 포괄적으로 설명할 새로운 해석법을 제시하게 된다.

## IV

블레이크의 방법론, 말하자면 그의 수사학은 히브류 예언자들처럼 전통적 방법을 변용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지만, 변용의 폭에 있어서는 놀라울 정도로 넓고 깊은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수사학은 과거의 시인들뿐만 아니라 당대의 시인들과도 다른 독창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후의 심판에 대

한 비전』(A Vision of the Last Judgement)에 붙인 주석 여기저기에서 그는 예술이 지각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비전의 매개체라는 신념을 되풀이하여 주장한다. 그는 우선 이 작품을 자기가 본대로 그렸으며, 이 작품은 다른 모든 것들이 그러하듯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르게 보일 것이라고 이야기한 다음 계속해서 신비적 공상과 상상력에 대해 설명하는 가운데 예언자의 시적 수사학을 암시하게 된다.

신비적 공상 혹은 상상력의 본질은 그리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영원세계의 자연과 계속해서 존재하는 자연의 이미지의 영속성은 현상의 자연보다 영속적인 것으로 여겨지지 않고 있다. 비록 참나무뿐만 아니라 레티스는 소멸하지만 그 영원한 이미지와 개개의 특질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그 씨앗에 의해 새로 태어난다. 이처럼 상상력에 의한 이미지는 다시 돌아온다. . .명상에 의한 사색을 통해 예언자의 저술은 비전의 세계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은 숭고하고 신성한 다양한 이미지에 의해 신비적 공상의 이러한 개념들을 명확하게 나타내준다.(Erdman, 555)

이와 같은 선언은 “나의 작품의 본질은 비전 혹은 상상력에 토대를 둔다. 그것은 옛사람들이 황금시대라고 했던 것을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이다”(Erdman 555)라는 진술과 더불어 블레이크가 예술만이 인간에게 황금시대(Golden Age)를 되돌려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준다. 따라서 그에게 있어서 이상적 예술이란 모든 독자들에게 자신의 상상적 능력을 최대한도로 발휘할 수 있게 하는 매개체인 셈이다.

독자들에게 무한을 인식케 하는 예언적 글쓰기의 과정은 “지옥의 인쇄소(a Printing house in Hell)”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진다. “지옥의 인쇄소”에서의 글쓰기는 단순히 전통의 답습이 아니라 전통과의 창조적인 만남을 통한 새로운 해석과 수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그 의미는 독자와 작가의 역동적인 만남을 통해서 모색되고 생성된다.

나는 지옥의 인쇄소에서 지식이 대대로 전해지는 방법을 보았다.

첫 번째 방에는 동굴입구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치우는 용인간(a dragon-man)이 있었다. 안에서는 수많은 용들이 동굴을 더 깊게 파내려 가고 있었다.

두 번째 방에는 독사가 바위와 동굴을 감고 있고, 이외의 다른 뱀들이 그를 굶, 은, 보석으로 장식하고 있었다.

세 번째 방에는 공기로 된 날개와 깃털을 지닌 독수리가 있는데, 그는 동굴 내



부를 무한한 곳으로 만들었고, 주위에는 독수리처럼 생긴 수많은 사람들에 거대한 절벽에다 궁궐을 지어 놓았다.

네 번째 방에는 포효하는 사자들이 타오르는 불을 뿜으며 흐르는 액체로 금속을 녹이고 있었다.

다섯 번째 방에는 이름지어지지 않은 형체들(unnamed forms)이 드넓은 공간에서 금속을 주조하고 있었다.

거기서 여섯 번째 방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를 받아들여 책의 형태로 만들고는 도서관에 정돈하였다.(Erdman 40)

“지옥의 인쇄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특징은 우선 글쓰기가 전통의 변용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전통에서 인습적인 것을 버리는 작업은 “동굴입구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치우는“ 용인간에 의해 이루어진다. 또 다른 특징은 창조적인 협력을 통한 공동작업이라는 것이다. 용인간의 작업은 다른 수많은 용들에 의해서 보충되고, 독사의 활동은 다른 뱀들의 도움을 받으며, 독수리의 활동은 독수리처럼 생긴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보충된다.”지옥의 인쇄소“에서의 이러한 작업은 『유리즌의 서』(*The Book of Urizen*)에 등장하는 유리즌이 한정된 단일체계의 우주를 창조하는 행위와 강한 대조를 이룬다.

보라! 나는 나의 어둠을 펼친다. 그리고  
내가 고독 속에서, 강력한 손으로  
이 바위 위에 쓴 영원한 황동의 책을 놓는다.

평화와 사랑, 통일,  
연민과 동정, 용서의 법전.  
각각 하나의 거주지,  
무한한 태고적 집을 고르게 하라.  
하나의 명령, 하나의 기쁨, 하나의 욕망,  
하나의 저주, 하나의 추, 하나의 잣대,  
하나의 왕, 하나의 신, 하나의 법.

Lo! I unfold my darkness: and on  
This rock, place with strong hand the Book  
Of eternal brass, written in my solitude.

Laws of peace, of love, of unity:

Of pity, compassion, forgiveness.  
 Let each chuse one habitation:  
 His ancient infinite mansion:  
 One command, one joy, one desire,  
 One curse, one weight, one measure  
 One king, one God, one Law.

유리즌은 다른 존재들과의 창조적인 협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혼자 고독 속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을 통하여 자신이 정한 기준으로 모든 것을 단일화하고 한정짓고 고정시킨다. 이처럼 한정되고 고정된 유리즌의 창조는 『밀턴』(*Milton*)에서 “나는 모든 글이 인간의 말로 쓰여지도록 하겠다. 그 글을 이 지구에 태어나는 모든 아기들이 읽고 60년의 어려운 삶의 과정으로 암기해야 할 것이다”(Erdman 111)라는 그의 말에서 암시되고 있듯이 대대로 고정된 단일한 체계 속에 “하나의 왕”, “하나의 신”, “하나의 법”을 정당화하면서 답습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유리즌의 글쓰기가 “고독 속에서 쓴 영원한 황동의 책”을 “바위 위에” 고정시키는 과정이라면, “지옥”에서의 글쓰기는 창조적인 협력을 통해 전통을 변용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굴, 절벽, 그리고 광대한 공간으로 확장되어 가는 과정이다.

여기서 “바위”라든가 “감고”있다는 표현에서 보면 독사의 행위는 유리즌의 작업을 연상하게 한다. 그래서 블룸은 독사가 인간을 타락한 한계 내에 머물게 하는 “구속하는 자(restrainer)”이기 때문에, 이와 대비되는 무한을 창조하는 독수리의 행위에 의하여 타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89) 그러나 독사의 행위는 “지옥의 인쇄소”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행위의 일부로서 무한에 대한 인식을 가능케 하는 “시적 정기”를 상징하는 독수리의 행위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블레이크에 있어서 “대립이 없으면 진보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Without contraries is no Progression).”(Erdman 34) 사자들이 금속을 액체로 녹이고 “이름지어지지 않는 형체들”이 드넓은 공간에서 그것을 주조하고, 사람들이 그것에 형태를 부여하여 도서관에 정리하는 과정은 독사와 독수리의 협력을 통해서 올바른 인식이 가능해진 후에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글쓰기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애덤스의 견해에 따르면 이 부분은 “창조적인 힘과 현실의 저장소로서의 언어행위”(139)를 암시하고 있으며, 이때 “금속”은 직접적으로 물질적인 인쇄의 매체를 연상하게 하지만, 언어로 표현되기 전의 현

실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사자는 고정되고 한정된 듯이 보이는 이러한 현실을 녹이고, 이렇게 녹여진 “금속”은 “이름지어지지 않은 형체들”에 의해서 구조된다. 이때 이 형체들은 현실을 담아내는 매체인 언어를 나타내며, “이름지어지지 않은”이란 수식어는 계속 생성되고 변형되어 가기 때문에 고정된 형용어구로는 담아낼 수 없는, 그리고 타락한 언어로는 명명할 수 없는 언어의 역동적인 힘을 나타낸다. 또한 예술가에 의하여 창조된 언어의 구조물은 유리존의 황동의 책처럼 그대로 받아들여 “암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작가와 독자의 창조적인 만남을 통하여 이름 붙여지고, 모양지어져야 할 대상인 것이다. 따라서 “이름지어지지 않은 형체들”에 담겨진 “금속”을 받아들여서 도서관에 정돈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형체들에 이름을 붙이는 독자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블레이크에 있어서 ‘신성한 비전(Divine Vision)’은 예언적 비전의 바탕을 이루며, 따라서 예언자는 곧 신의 말을 대신 전하는 존재이다. 예언적 언술에 대한 이러한 사실은 그에겐 중요한 미적 의미, 즉 시의 수사학을 결정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가령 그는 신이 예수 안에서 화신하였으며 모든 인간의 심성에 내재 혹은 잠재해 있는 신성이라고 믿는다. 예를 들어 다음의 “양(The Lamb)”과 같은 시는 그의 이러한 신념을 잘 묘사하고 있다.

Little Lamb, who made thee,  
Dost thou Know who made thee?

Little lamb, I'll tell thee,  
Little lamb, I'll tell thee!

He is called by thy name,  
For he calls himself a Lamb; He is meek and he is mild,  
He became a little child:  
I a child, and thou a lamb,  
We are called by his name.

어린 양아, 누가 너를 만들었니?  
누가 너를 만들었는지 너는 아느냐?

어린 양이여, 내가 너에게 얘기해줄게.

어린 양이여, 내가 너에게 얘기해줄께!  
 그분은 너의 이름으로 불려지신단다.  
 그래서 그분은 자신을 어린 양이라고 부르시지,  
 그분은 양순하고, 또 그분은 부드러우시단다.  
 그분이 어린 아이가 되신 거란다.  
 나는 한 아이, 그리고 너는 한 마리 어린 양,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단다.

이 시에 따르면 우리 모두는 신의 자손들이다. 그러나 이 시는 인간, 신 그리고 이들의 창조물이 하나 됨(eness)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됨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occasion)를 우리에게 제공한다. 시속의 “I”나 “thou”가 번즈(Burns), 콜리지(Coleridge), 혹은 키츠(Keats)의 시에서 전형적으로 등장하는 사적인 만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작품은 사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예언적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 “I”와 “thou”는 어린이를 비롯한 모든 인간, 양, 그리고 그리스도의 순환적 관계를 나타내는 기호이다. 이 작품의 기법은 시 자체의 기호를 해석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기호들의 의미를 이해할 관점을 제공하지도 않고 그것들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 시는 마침 밀봉돼 있는 것처럼 단단히 닫혀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이 작품은 독자들에게 특별한 요구, 즉 독자—시가 나타내는 ‘신성한 비전’의 의미를 경험하게 될 유일한 존재—로부터 그 자체의 의미를 요구하는 것이다.

콜리지의 “한밤의 서리(Frost at Midnight)”나 키츠의 “빛나는 별(Bright Star)”같은 시에서는 시인이 철저히 그의 시속에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들의 경험은 시인들의 삶,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시속에 표현된 시인들의 삶에 의해 조정된다. 그러나 블레이크의 시에서는 결코 이러한 조정 상태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독자는 독자 그 자신이 시어에다 자신만의 시적 의미를 부여하고 나서야 비로소 명확한 의미를 갖는 언어 과정을 어쩔 수 없이 직접적으로 경험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길함의 지적은 독자와 블레이크와의 관계에 대해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

블레이크는 그 어떤 메시지도 철학을 담지 않는다. 그는 이것보다 더 나은 무엇, 즉 인간의 에너지가 그 자체를 분명히 나타낼 수 있는 진지한 방법을 보여준다. 비록 블레이크가 대립물의 상태를 묘사하면서 다양한 도그마를 우리에게 거론하

고 있기는 하지만, 그는 도그마 중 그 어떤 것에도 동의를 표하지 않는다. 그는 그 어떤 궁극적인 진리를 보여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진리를 만들어 내도록 내버려둔다. 그는 우리를 일깨움으로써 우리가 최상의 진리를 나타낼 있도록 노력하면서도 그 진리가 어떤 것이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작업과는 자신을 분리시킨다.(5)

작가와 독자의 완벽한 분리, 바로 블레이크의 이러한 점 때문에 많은 비평가들이 그의 시를 설명하기 위해 '소리(Voices)'와 '화자(Personae)'등의 개념에 몰입하게 된다. 이처럼 작자의 사적인 목소리가 드러나 있지 않고 화자만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화자라는 용어 자체는 그의 작품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비개성적 무력증(depersionalizing inertia)'을 나타낸다고도 볼 수 있다.(McGann 5) 그러나 그의 시의 예언적·상상적 측면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비개성화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그의 시는 독자라는 존재 안에서만 예언적 비전을 실현한다.

독자, 저자, 그리고 텍스트의 성격과 텍스트 내에서 이 세 요소들 상호간의 복잡한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블레이크에 대한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폴 만이 “어떤 의미에서 그의 예언은 우리[독자]가 읽고 있다는 사실에 의해 완수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독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독자의 위치가 아니라 텍스트의 또 다른 저자로서의 능동적 독서 행위이다.(9) 그러기 위해서 그는 “상상력의 죽음”과 유사한 폐쇄구조를 지향하는 “뉴튼적 내러티브”를 해체하기 위하여 서사시 또는 내러티브시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 한다.

뉴튼적 내러티브가 함축하고 있는 목표는 명확한 확언을 통한 상상력의 죽음이다. 블레이크의 내러티브에 나타난 명시적 목적은 부정적인 변증법을 통하여 여태까지 묻혀있던 인간의 상상력을 강렬하게 일깨우는 것이다.(Ault 107)

울트의 주장에 담긴 함축적인 의미는 바로 블레이크가 독자들에게 경직된 주체와 객체의 구별을 전복하라는 요구이다. 이러한 요구는 표현법을 통일하고, 폐쇄적 내러티브의 유출을 막으며, 그리고 그가 『라오콘』(*The Laocoon*)에 대한 주해에서 주장하고 있듯이 작가와 독자 사이의 차이를 극복하려는 시도이다. 역시 같은 글에서 “인간의 영원의 육신은 상상력이다”라고 하고 있는

것처럼(Erdman 273) 읽혀질 텍스트를 창조하는 행위와 같이 독서 행위는 상상적이면서 능동적인 것이어야만 한다. 이처럼 그는 독자와 작가의 행위 무대 사이의 차이를 불식시키려 한다. 또한 “그리스도는 예술가이며, 그의 제자들도 예술가이며, 그리고 모든 진정한 기독교인들도 예술가이다”(274)라는 그의 선언적 진술은 작가와 독자는 각자의 속에 존재한다는 의미를 함축한다. 따라서 입스의 지적대로 예술과 청중에 대한 블레이크의 신념은 동일시—즉 그리스도와 제자들 그리고 모든 진정한 기독교인들의 순환적 관계—를 통하여 정체가 형성되면서 수반되는 분열의 통합을 촉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Eaves 795)

## V

블레이크 특유의 독자적 수사학은 언어사용의 기법, 즉 이미지리 혹은 상징을 통해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다. 어느 직물이든지 메터퍼나 직유에 의해 일관된 세계를 창조함으로써 통일성이 유지된다. 그 과정 속에는 독자들의 상상력의 눈에 비친 주제에 대한 작가의 비전을 보여줄 언어 영역에 대한 주요 특징들이 포함된다. 대체로 작가의 비전이 독자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초반에 작가가 독자들에게 친숙한 전형적 인물들, 사건, 그리고 장소와 지시 대상에 대한 외적 체계를 활용할 때 더욱더 효율적이 된다. 궁극적으로 작가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신만의 주관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쓰게 되지만, 다소간은 익숙한 표현 방식, 당시 유행하는 견해, 그리고 어느 정도는 독자들의 현재의 생각까지도 수용하게 되는 것이다. 가령 단테는 그의 말에 함축되어 있는 정치적·철학적·종교적 의미를 인식하고 있었던 독자들을 위해 글을 썼고, 밀턴은 성서에 대한 독자들의 지식과 당시 정치적·종교적 논쟁에 대한 자신의 관심사를 적절히 활용했으며, 그리고 스위프트는 통렬한 풍자를 여행담이라는 아주 친숙한 형식 속에 담아 냈던 것이다. 그러나 블레이크는 독자들에게 이와 같은 친숙한 어떠한 기법도 사용하지 않는다. 특히 후기 예언시에 이르게 되면 지금까지 개인적인 예언적 비전을 담게 된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작품에 대해 언급하는 가운데 독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전혀 새로운 인물들과 장치들”을 가진 그의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시 대상의 내적 체계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한

다.(Erdman 728) 그러므로 주제와 표현에 있어서 블레이크의 독창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서 지시 대상의 외적 체계만을 통해서 그에게 접근한다는 것은 그의 작품의 진정한 의미를 훼손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도 모른다.

결국 블레이크에 있어서 예언적 전통은 당대의 합리주의에 의해 초래된 묵시록적 위기를 맞아 사회에 자기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 블레이크는 개인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정치적 혁명을 사회의 구원, 나아가서는 우주 자체의 구원에 대한 새로운 해석법을 제시하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모범으로 삼았던 히브류 예언자들이나 밀튼의 방법론을 변용하여 그 예언적 비전이나 수사학을 확장하고 심화시키게 된다. 신과 인간을 종속적인 관계 속에서 생각했던 히브류 예언자들의 예언적 비전과는 달리 블레이크의 그것은 신과 인간을 순환적 관계 속에서 생각함으로써 인간은 모두가 동등한 신성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을 확신시키려 한다. 이에 따라 그의 예언의 수사학은 비록 독자들에게 많은 부담을 지우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독자라는 존재 안에서 예언적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독특하면서도 독창적인 형식을 갖게 된다.

## Works Cited

### I. Primary Works

- Blake, William. *The Complete Poetry and Prose of William Blake*. ed. David V. Erdman. Berkely: Univ. of California Press, 1981.
- . *The Poems of William Blake: The Complete Poems*. ed. W. H. Stevenson. London: Longman, 1971.

### II. Secondary Works

- Adams, Hazard. "Blake and the Philosophy of Literary Symbolism" *NLH* 5(1973): 135~46.
- Bloom, Harold. *Blake's Apocalypse: A Study in Poetic Argument*. Ithaca: Cornell Univ. Press, 1963.
- Bronowski, Jacob. *William Blake: A Man without a Mask*.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54.

- Brown, Norman O. "The Prophetic Tradition", *Studies in Romanticism* 21(Fall 1982): 367~386.
- Curran, Stuart. et al. eds. *Blake's Sublime Allegory: Essays on the Four Zoas, Milton and Jerusalem*. Madison: The Univ. of Wisconsin Press, 1973.
- Eliot, T. S. *The Sacred Wood*. Lonthon: Methuen, 1934.
- Fisher, Peter. *The Valley of Vision: Blake as Prophet and Revolutionary*. Toronto: Univ. of Toronto Press, 1960.
- Frye, Northrop. ed. *Blake: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1966.
- Gilchrist, Alexander. *Life of William Blake*. 2 vols. New York: Phaeton Press, 1969.
- Gillham, D. G. *Blake's Contrary States: The Songs of Innocence and of Experience as Dramatic Poems*.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66.
- Heschel, Abraham J. *The Prophet: An Introduction*. New York: Harper & Row, 1969.
- Hoagwood, Terence A. *Prophecy and the Philosophy of Mind: Traditions of Blake and Shelley*. Alabama: The Univ. of Alabama Press, 1985.
- Koch, Klaus. *The Prophets*. Vols. I & II. Trans. Margaret Kohl. Philadelphia: Fortress, 1984.
- Mann, Paul. "Apocalypse and Recuperation: Blake and the Maw of Commerce." *English Literary History* 52:1 (Spring 1985): 1~32.
- Raine, Kathleen. *Blake and Tradition*.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68.
- Schorer, Mark. *William Blake: The Politics of Vision*. Gloucester: Peter Smith, 1975.
- Wittreich, Joseph Anthony, Jr. ed. *Milton and the Line of Vision*. Madison: Univ. of Wisconsin Press, 1975.



Abstract

## Prophecy and the Reader

Hur, Yoon-Deok

This thesis aims to illuminate William Blake's poetry in terms of the prophetic tradition and its transfiguring use. From the earliest period of his poetic career, Blake displays many characteristics in connection with the prophetic tradition. Blake belongs to this tradition not so much because of his use of the structures and devices of the Bible as because of his stance, his purpose of delivering humankind, and his transfiguring perception that simultaneously sees the past, present, and future, the divine, the human, and the natural, the subject and the object, the cause and the effect. These characteristics are embodied more clearly in his voice, his distinct metaphoric and grammatically ambiguous style, and his simultaneously critical and affirming use of allusions to the Bible and Milton.

Conclusively speaking, Blake renders his prophetic perception of the world through his own rhetorical and experimental poetic devices such as syntactical and semantic ambiguities, and organic and transfiguring uses of religious, political, and literary traditions. And he also revisions the visions and rhetoric of his predecessors and delivers the reader's mentality from the confines of established conception and conventional modes of thinking and awakens man's dormant capacity for perception of the infinite in the world. Finally, Blake intends to build 'New Jerusalem' or Eternity, a democratic world, in which the variety and individuality of all individuals coexist in harmony and all of beings have a organic and active relationship to each other.